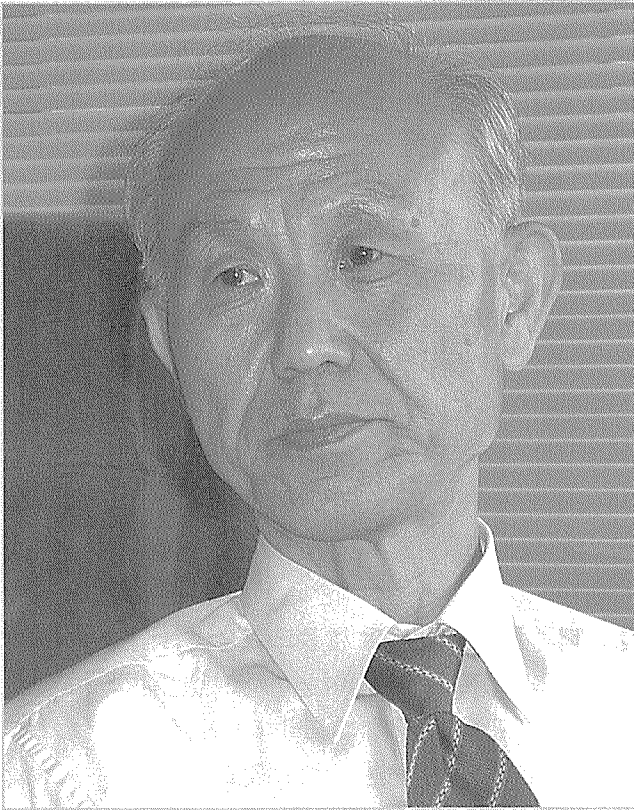


●●● 노영한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 기자재 상설전시장을 통한 축산발전 도모



### ▲ 노영한

- 1961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졸
- 1963 전북 종축장 근무
- 1964 경기도 종축장 근무
- 1966 (사) 한국가금협회(지도조사부장)
- 1969 (사)한국종축개량협회(종계능력검정소장)
- 1973 (사)대한양계협회(사무국장, 전무)
- 1988 (사)대한양돈협회(전무이사)
- 2000 (사)한국축산환경협회(부회장)
- 2005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보고는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월간양계 창간에 참여하고 월간양계 편집장 및 양계협회 전무를 지내면서 월간양계 수준 향상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을 만나 최근의 근황 및 월간양계와 양계업계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농협금산인삼판매장 4층에 위치해 있는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만난 노영한 회장은 최근 더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국가정책이 친환경산업을 지향하고 있어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축분처리 문제 해결은 물론 국내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진출업체 흑자로 전환

노영한 회장은 현대의 축산기자재 산업은 기계공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IT산업이 현장에 적용되

면서 센서를 이용해 병계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기술이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고 전제하고 내수보다는 국외 수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문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정부보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시장을 개척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금년부터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활력을 얻고 있다.

협회는 최근 들면서 중국 장춘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기자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에 개최될 VIV중국 박람회에도 출품 준비를 하는 등 중국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 정부의 많은 보조로싼 가격에 중국시장에 파고들면서 가격 경쟁에서 아직도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확대를 꾀해가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업체도 양계 기자재를 포함해서 5~6개 업체가 되는데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자재 상설전시장 추진

협회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축산 시설을 통해 국내 농가들의 방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개방하여 직접 시설업체를 가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설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이미 안성시 일죽면에 6만 400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이미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업체)은 물론 추가로 참여코자 하는 업체들을 취합해 상설전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설 전시장에는 연수원은 물론 테니스장 등 유락시설

도 만들어 운영할 뜻을 밝혔다.

또한 노회장은 돈분문제로 인한 환경개선 대책으로 협회에서 AS를 보증해주고 축분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에 돌입하였다. 돈분은 정부에서 자금을 융자해 분뇨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용성보다는 가격위주로 시설을 하다보니 이것이 시설업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AS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계분도 농가의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였지만 금년 7월부터 유기질 비료 확대지원으로 계분은 물론 타축분도 다소 처리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양계잡지 색션화 필요

노영한 회장은 1966년 가금학회(전 대항양계협회)에 입사하여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양계협회에 근무할 당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많았다. 당시에는 월례 강습회를 다달이 실시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로 인해 월간양계를 만들게 되었고 노회장이 월간양계 편집국장으로서 활동할 1978년부터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면도 중시를 했기 때문에 볼륨도 늘리고 질적인 향상을 꾀했다. 이때부터 양계 안테나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을 실어 사양가는 물론 사료, 약품 회사의 실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노회장은 이제 IT산업으로 돌입하면서 잡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할 때라 보고, 색션화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시각적인 면을 중시하여 보는 잡지로 탈바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